#### 2017년 11월 12호

###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노트

윤태영,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2014) 中



### **21** 대화체를 적극 활용하라 쓰기도 편하고 읽기에도 좋다

"어, 저건 뀡이잖아? 뀡이 이곳에 다 오네."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기라도 한 듯, 대통령은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 마당이 보이는 창문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2주일이 지난 3월 25일 오후, 관저 응접실에서의 일이었다.

진부한 설명이 지루하게 이어질 때 대화를 생생하게 묘사해 볼 필요가 있다. 수필이나 감상문, 여행기에도 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_\_\_\_\_

### **22** 예화의 활용,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먼저, 모두 다 아는 고사성어나 명언의 경우 현실의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한다. 누구나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유라면 안 쓰는 편이 훨씬 낫다. 둘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사나 예화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량이 너무 많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셋째, 마땅한 명언이나 예화가 떠오르지 않을 경우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대체하는 게 좋다.

고사성어나 명언, 예화는 글의 맛, 말하자면 설득력을 높이는 '글의 양념'이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재창작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_\_\_\_\_\_

### 23 창조적 모방, 주저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5월도 잔인한 달.'

'주여, 때가 왔습니다.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모방을 거듭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만들어진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전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_\_\_\_\_

# **24** 글이 산만하면 '첫째, 둘째'를 활용하여 단락을 지으라

첫째, 주택-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은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일순에 앗아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서민 경제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을 청년실업해소, 서민주택건설 지원, 전략적 SOC투자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등 서민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첫째, 둘째···'은 글을 깔끔하게 정돈한다. 그러나 호흡을 멈추게 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시키니 서정적인 글에서는 가급적 활용하지 말자\_\_\_\_\_\_

# **25** General specialist보다는 Special generalist가 되어 보자

글을 잘 안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글'은 하나일 뿐이다.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글'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특정 분야만 쓰는 general specialist보다는 모든 방면의 글을 두루 쓰는 special generalist를 지향해야 한다. 권하고 싶은 것은 '소설쓰기'와 '소설읽기'이다. 소설이야말로 글쓰기의 훌륭한 교재다.

## **26** 영화 대사, 광고 카피에 우리가 찾는 정답이 있다

부산의 차세대 주자 대구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30년 광주를 지켜 온 기둥

광고는 짧은 시간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카피를 써보는 건 글쓰기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지하게 담아야 한다.

# **27** 고리가 길면 밟힌다 길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아무런 사진이나 그림도 없이 한가운데 작은 글자로 "정치세탁",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머지 공간은 전부 여백이었다. 네 글자가 주는 파괴력의 힘이 있었다.

이야기가 많으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독자의 욕량에는 한계가 있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자\_\_\_\_